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

열두 사도의 파송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을 제시해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기도중에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주님의 촉구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할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쓰이기 위해 부르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지만, 만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주시도록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아 저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에 합당한 자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도중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즈음해서는 “가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부르실 때에는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2절부터는 보내심을 받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 보내실 때 이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이들은 제자, 즉 따르는 자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관 자라”(10:2-4)

가나안인 시몬은 누가복음에 ‘셀롯이라 하는 시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셀롯(Zealots)은 열광적인 애국자들로서 이들은 생명보다도 자유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으며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들은 로마정부에 계속해서 항거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던 자였습니다. 마태는 증오의 대상이던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 걷는 일을 했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였습니다. 만일 마태와 시몬이 다른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면 시몬은 마태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함께 제자로 부르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잘 화합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부자나 세상적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사람을 택하실 때,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평범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거나 훌륭한 사람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만 도구로 쓰신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에 감탄하여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보다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더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상에서 지혜롭고 위대하고 저명한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 열둘을 사도로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사역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쪽 사마리아로도, 서쪽 두로와 시돈으로도, 북쪽 다메섹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갈릴리 근방의 유대인 지역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처음 파송할 때에 그들이 사역할 지역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따라 갈릴리 각 마을로 가실 계획이었으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종의 선발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후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우물에 물길러 온 한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이 맨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첫번째 제자 파송시에 그들의 사역지가 유대인 지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에 따라 그들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10:7-8)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사실 너희 ‘안’이라기보다 너희 ‘사이’라는 의미입니다(눅17:21). 실제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요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속에 왕이 되셨다면, 당신은 이미 천국의 시민이며 이에 따르는 엄청난 혜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에도 미국의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현지에서 만일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대사관으로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현지의 미국인들을 돕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 시민권이 부여하는 혜택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므로 미국 정부는 마땅히 제가 누릴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은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들보다 훨씬 더 많고 좋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습니다. 천국의 권세가 제 뒤를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이사야 35:5-6에서 천국의 여러 면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행 26:17-18).

바울의 사명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에 귀기울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동시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생명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 안에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미와 지혜에 완전하며 기름부음을 받은 한 천사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같이 높이하고자 했습니다. 물론교의 시초인 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물론교의 믿음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무슨 말로 유혹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교만해진 천사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의 왕국, 즉 우주의 두번째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왕국은 첫번째 왕국과 정반대의 속성을 지닌, 곧 첫번째 왕국에 대한 반란으로 인해 생긴 죽음과 흑암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왕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과 생명의 왕국과 그것에 반란을 일으키며 사단이 세운 흑암과 사망의 소왕국입니다.

창조되던 때의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빛과 생명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흑암의 왕국을 지배하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동시에 사단에 대한 순종이므로 그들은 빛과 생명의 왕국에서 나와 사망과 흑암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죽음과 흑암의 왕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즉 빛과 생명의 왕국에 있었던 거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로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악중에 출생하고 죄중에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누구라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인 빛과 생명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의지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선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임무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죄인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사망과 흑암의 왕국에 묶여 있는 자들,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와 속박의 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자유의 왕국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 아담을 비난합니다. 아담의 잘못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아담이 어리석게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 먹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 두 가지 나무가 다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으로 당신은 지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이 세상의 열매를 따 먹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아담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생명나무로부터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의 복음 전파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친교를 갖고 있는 관광 안내원인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유대인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얘기 내용 가운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성지순례를 인솔하면서 그리스도인 여행자들을 속여서 돈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자신의 컴퓨터 편지 수신자 명단에 포함시켜 여러 가지 기도를 해주겠다고 여행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관광 안내원도 계속 컴퓨터 편지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그는 복음사업을 일종의 사기로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으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저 주어야 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10:9-10)

이 말씀은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후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므로 복음 전하는 자는 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10:11-13)

그 당시에는 축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만일 멀리서 오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와 그대의 자손에게 임하소서’라고 빌었다가 그가 이방인인 줄 알게 되면, 즉 그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 축복을 도로 가져 가겠소’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10:14-16)

어떤 사람들은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 생물학 교수가 강의 중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비난하면서 뱀은 지혜롭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물학적인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 한 학생이 일어나 ‘교수님은 팔과 다리없이 얼마 동안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말입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이 학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태에서 생존하는 것에 관해서는 뱀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박해에 대한 교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10:17-20)

이러한 상황에서는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10:21-22)

“나중까지 견디는 자...” 여기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때때로 도덕률 폐기론자(antinomians: 구원받기 위해서는 도덕이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신앙지상주의자들-역주)라든가 믿는 자들의 안전에 대한 극단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동전의 한 면만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10:23)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동네들을 곧 친히 여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시켜 해석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 주변 마을에서 하신 그분의 사역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죽어도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10:24-25)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같이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였으니 그 제자들도 욕하지 않겠습니까? 바알세불이란 ‘파리들의 왕’(Lord of the flies)이라는 경멸조의 호칭입니다.

“그러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10:26-27)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소그룹으로 배운 것들을 세상에 나가 큰 소리로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10:28)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당신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이 육신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10:29)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부류에 속하는 것이 참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고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밀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쓰러져 죽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10:32-33)

참으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척 스미스는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구원자의 능력을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어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완전케 하실 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별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부인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 때에 그들이 예수께 달려가 아무리 다급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 외친다 하여도 그분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10:3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하나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반로마 열성 당원을 함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나뉘게도 합니다. 하늘 나라에 속한 자들과 흑암에 속한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되게도 하시며 분리하게도 하십니다. 한가족 가운데서도 아들은 빛의 나라에 속해 있고 아버지는 흑암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분리가 일어나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10:35-36)

예수님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반대했습니다.

“아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10:37)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버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10: 38-40)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보낸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행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제자들 영접하기를 주님 영접하듯 해야 합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10:40-42)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 하듯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행해야 하며 주님께 드리듯이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